경기둔화 뚜렷…코로나 위기 제외시 성장률 13년 만에 최저

OECD, 세계 전망 상향 조정 속 韓 전망 1.8→1.6%
1% 미만 성장, 코로나·금융위기·IMF 등 5회 불과
중국 리오프닝 효과 내년 본격화…금융위기 경계

경기둔화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대로 곤두박질 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첫해를 제외하면 금융위기 이래 1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수출과 내수 모두 회복 사이클을 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 세계적인 금융불안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 경제 하방 요소로 떠올랐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성장률이 2% 아래를 기록한 것은 5회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경제성장률이 여섯 번째로 2%를 밑돌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로 경제 성장률이 2%를 밑돈 때는 ▲건국 초반 경제가 불안하던 시절인 1956년(0.6%) ▲2차 석유 파동 직후인 1980년(－1.6%)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0.8%) ▲코로나19가 확산 첫해인 2020년(－0.7%)뿐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7일 중간경제 전망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은 2.6%, 한국의 성장률은 1.6%로 내다봤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 등의 영향으로 세계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 대비 0.4%포인트(p) 올려 잡았다. 반면 한국은 0.2%p 오히려 낮췄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 한국 성장률이 -0.4% 역성장한 점이 전망치 하향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OECD가 작년 11월 전망 당시 한국의 2~3분기 성장률만 보고 4분기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망했는데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보고 올해 성장률을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전망 기관들의 전망 수준은 1.5%를 중심으로 수렴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 올해 성장률을 1.6%로 예상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로 내다봤다. 한국금융연구원 1.7%, 한국경제연구원 1.5% 등이다.

국제통화기금(IMF) 1.7%, 아시아개발은행(ADB) 1.5%로 전망했고 신용평가사 피치 1.2%,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1.4%, 무디스 1.6% 등이다. 종합하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2%)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경기가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후 하반기 흐름이 좋아지는 흐름)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많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흐름을 찾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현재는 위험요소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출이 어려운 가운데 내수 회복이 더딘 것이 우리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58억 달러(약 20조6664억원), 수입은 208억 달러(약 27조2064억 원)에 달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6.2% 감소한 반면 수입은 2.7% 증가했다.

올해 연간 수출누계는 1123억 달러(약 146조8884억원), 수입은 1351억 달러(약 176조7108억원)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2.6% 감소, 수입은 0.6% 증가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연간 227억7500만 달러(약 6조535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2.1% 감소하는 등 내수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2월의 경우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과 백화점 매출 증가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같은 달 대비 18.1% 증가했고, 백화점 매출액은 5.2% 올랐다.

2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전달과 유사하게 8.1% 증가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속보치)는 코로나 이후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224.5% 급증했다.

소비자심리지수(CSI)는 90.2로 전월(90.7)보다 0.5p 떨어졌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 미만이면 과거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좋지 않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SVB 파산 사태 등과 같은 연쇄금융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불안은 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구조적으로 반도체 경기불황과 함께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인한 외환 수급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하반기 위험성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은 보이지 않는는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화하면서 다시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OECD도 이번 전망에서 내년 한국 성장률을 1.9%에서 0.4%p 올린 2.3%로 내다봤다.

이승한 과장은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면서 내년 성장률을 0.4%p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이슬 기자

"낡았지만 멋있어" 80년대 스타일 '그런지룩' 재유행 왜?

Y2K 인기에 '그런지룩' 주목...지그재그서 카고 팬츠(931%), 워싱 청바지(192%) 성장

지난해 패션 업계를 강타한 키워드 중 하나는 'Y2K'(190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유행한 밀레니얼)였다.

Y2K 패션은 기성 세대에게는 그 시절 향수를 추억하게 하는 스타일이다. 젊은 세대에게는 경험하지 못한 추억과 시대에 대한 향수로 느껴지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00년대 감성의 체크 패턴 셔츠를 아우터처럼 입는 '셔켓'(셔프와 재킷의 합성어) 스타일이 떠오르며 '체크 셔츠' '셔츠 재킷'이 높은 관심을 받았다.

또 플랫폼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에 통 넓은 청바지 '와이드 데님 팬츠'가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패션업계는 올해 역시 Y2K 스타일이 진화(Evolution of Y2K)되고 확대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중 하나인 '그런지 룩'(Grunge Look)이 최근 인기를 끌며 새로운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지 룩'은 미국 시애틀주의 그런지 뮤직에서 유래된 것으로, 1980년대 후반 '엘리트주의' 및 '하이패션'에 대한 반감으로 시작된 보헤미아니즘 룩을 말한다. 낡아서 해진 듯 한 느낌을 주고,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 스트리트 패션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며 편하게 입고 싶어하는 자유분방한 현대인의 욕구를 잘 반영한 '그런지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재해석된 '그런지룩'의 대표 아이템은 Y2K 분위기를 담은 오버사이즈 스웨터, 그래픽 티셔츠, 찢청(찢어진 청바지·치마), 워싱 청바지 등이다.

실제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에 따르면 올해 그런지룩 패션 거래액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

1~2월 지그재그의 카고 팬츠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부려 931% 증가했고, 워싱 청바지(192%), 커팅 청바지(127%), 빈티지 패션(101%), 보헤미안 패션(91%) 등도 2~3배씩 많이 팔렸다.

그런지룩이 인기를 끌며 지그재그의 상의·하의 베스트셀러에는 카고 팬츠, 컷팅 청비자, 오버핏 셔츠 등 관련 아이템이 상위권에 다수 이름을 올렸다 .

쇼핑몰 '블림핏'이 판매 중인 '오버핏 딥 브러쉬 와이드 데님 팬츠'는 연청, 딥진청, 흑청 등 6종의 워싱 청바지를 판매해 4500건 이상의 리뷰를 기록했다.

이슬비기자

외식 업계, '리프레시 푸드' 봄 입맛 사로 잡아

외식 업계가 봄을 맞아 '리프레시 푸드'를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한결 따뜻해진 날씨로 나른해진 입맛에 계절에 어울리는 산뜻함과 활기를 더한다는 점이 이들 메뉴의 특징이다.

튀김옷을 과감히 벗어 던진 건강한 치킨 샌드위치부터 제철 봄나물을 활용한 한 끼 식사, 제주도의 식자재로 구성한 중식 요리 등 종류도 다양하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산뜻한 봄날에 제격인 '2023 SS 치킨 컬렉션'을 내놓았다. 써브웨이를 대표하는 치킨 메뉴인 로스트 치킨 샌드위치 및 샐러드와 로티세리 바비큐 치킨 및 샐러드 등 총 4종으로, 빵, 채소, 치킨이 어우러졌다.

반죽을 입혀 튀기는 일반적인 치킨과 달리, 오븐에 굽거나 수비드해 칼로리(열량) 부담을 한층 덜었다. 샐러드는 더욱 풍성하게 더해진 다채로운 채소가 치킨 고유의 맛과 어우러지며 봄철 나른한 입맛을 한층 산뜻하게 깨워준다.

아워홈의 푸드엠파이어는 냉이, 부추, 참나물, 돌나물, 죽순, 미나리와 같은 봄나물을 활용한 신메뉴를 출시했다. '봄나물 우삼겹 된장찌개', '봄나물 연두부 비빔밥', '봄 담은 유산슬 덮밥', '봄 미나리 불오징어 반상' 등 총 4종이다.

크리스탈 제이드는 제주도 식자재를 활용한 시즌 한정 메뉴를 출시했다. '탐라성찬'을 콘셉트로, 제주 흑돼지와 제주 딱새우, 제주 모자반과 톳 등 봄의 미각을 깨워줄 청정 식자재를 통해 새 봄의 만찬 의미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메뉴는 신선한 바지락에 제주산 딱새우, 모자반을 넣어 깊고 진한 맛을 살린 '제주 바지락 탕면', 제주산 톳을 전복장과 함께 볶아내 고소함을 더한 '제주 톳 전복장 볶음밥', 중국 산둥 지방의 '무쉬러우'를 크리스탈 제이드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제주 흑돼지 무슈포크' 등 3종이다.

던킨은 부드러운 연유를 활용해 기분 좋은 달콤함을 선사하는 시즌 신제품 3종을 선보였다.

김재환 기자

광양경제청, "2023년 외자유치 활동 적극 펼친다"

한국의 FTA 활용한 글로벌 신성장산업 전초 기지로 성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송상락, 이하 광양경제청)은 올 초부터 재개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적극 펼칠 방침이다.

광양경제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재편된 글로벌 공급망을 고려해 〈경제자유구역 2.0, 혁신생태계 조성 전략〉을 수립하고 기능성화학, 이차전지와 수소산업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금속·소재부품, 물류·운송 등 핵심전략산업을 지정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대비한 외자 유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에는 4월에 중국 상하이, 항저우 등의 이차전지 분야 기업들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해 대만 국제자동차 부품 박람회,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 중국 국제에너지저장 포럼 등에 참석하고, 미리 발굴한 잠재투자기업들을 방문한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10여 개국을 대상으로 광양만권의 투자여건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하반기에도 활발한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가 계획되어 있다. 8월부터 미국, 중국, 독일, 스위덴, 싱가포르 등 해외투자액 상위국가들을 대상으로 광양만권의 핵심전략산업 IR을 6회 이상 열고 특히 FTA 체결국 이점과 광양항의 물류적 이점을 활용한 이차전지 관련 외투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광양경제청은 광양만권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관·부가세 및 지방세 최대 15년 감면, 신성장동력과 신성장 기술에 해당할 경우 현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광양경제청은 지금까지 첨단산업 분야에서 FDI(외국인 직접 투자) 도착기준으로 6억690만 달러의 외자 유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과 세계경기 하강의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포스코HY클린메탈, 포스코리튬솔루션, 광양알루미늄 등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여 지난 3년간 1억6천4백만 달러를 달성, 이차전지 핵심소재 및 경량금속 분야 생산거점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했다.

송상락 청장은 "양극재 중심에서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셀제조 분야 등 외투기업 유치 다변화로 광양만권 이차전지 핵심 생태계 구축 및 공급망 안정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천정부지' 항공권값, 언제쯤 내릴까

도쿄·베이징 왕복 60만원, 제주 15만원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 여행 수요가 많은 국제선 항공권 가격이 고공행진 하고 있다. 여객 수요가 많이 늘었지만 항공편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며 항공권 값이 크게 오른 것이다.

19일 항공권 가격비교 사이트에 따르면 오는 24일 출발해 26일 돌아오는 인천-도쿄 왕복항공권 가격은 이달 현재 55만~65만원 사이에 형성돼 있다. 대한항공 등 대형 항공사의 가격은 이보다 더 비싸다. 코로나 이전까지 20만~30만원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중국 노선도 항공권값이 비싸긴 마찬가지다. 이달 현재 주말을 낀 인천-베이징 노선 왕복 항공권 가격은 가장 싼 것이 55만원에 육박한다. 국적기 항공권은 70만원을 넘는다. 국내선도 주말 김포-제주 왕복 항공권이 15만원 이상이다.

이처럼 항공권 가격이 비싼 것은 항공 운항편수가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늘지 못한 데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항공기 연료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일부 항공사가 국내선에 투입하던 항공기를 수요가 늘고 있는 국제선으로 돌리면서 국내선 항공권 가격도 영향을 받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 에어포털에 따르면 코로나 대유행 전인 2019년 9303석에 달하던 항공기 여객편 좌석 수는 2020년 4474만석으로 반토막이 났다. 2021년에도 4551만석에 그쳤다.

항공기 운항편수도 2019년 46만편에서 2021년 28만편으로 급감했다. 국내외 여객 수도 7880만명에서 3500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여객 수요가 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외 항공사가 공급한 여객 좌석 수는 5500만석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60% 수준에 그친다. 운항편수도 31만편에 불과했다.

올해는 여객 수요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 지난 1~2월 항공기 여객 좌석 수는 1107만석으로 단 두 달 만에 지난해 전체의 20%를 넘어섰다. 운항편수도 5만7000편에 달했고, 여객 수도 990만명 이상이었다.

오유나 기자